

“남북 초경량소재 클러스터 조성하자”

광주전남연구원, 남북신경제협력사업 추진 대책 제시 북 마그네사이트광-남 소재가공기술 결합 시장 선점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등으로 인해 남북 화해무드가 조성되고 있는 가운데 남북의 새로운 경제협력사업으로 초경량 소재 클러스터를 조성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북의 마그네사이트광 등 천연자원과 남의 소재가공기술을 결합해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부품으로 부상하고 있는 초경량 소재시장을 선점하자는 것이다.

광주전남연구원이 24일 발표한 ‘광전 리더스 인포’의 ‘남북 신(新) 경제협력사업, 초경량소재 클러스터 조성으로 물꼬를 트자’라는 보고서에서 오병기 책임연구원은 “27일 남북 정상회담을 전후해 새로운 경제협력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오 책임연구원은 지난해 대선 공약으로 반영된 ‘초경량 마그네슘 소재·부품단

지 조성사업’의 세부 사업에 마그네슘 산업 육성을 위한 경제협력사업 추진이 포함돼 있으며, 이를 신(新) 경제협력사업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마그네슘의 원료인 마그네사이트광은 전 세계에서 북한에 가장 많이 분포하며, 최대 60억t에 달해 잠재 가치가 약 2700조원에 달하고 있지만, 중국이나 러시아를 비롯한 주변 국가에서 대북 광물자원을 선점하기 위해 꾸준히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북의 마그네사이트광 자원과 남의 소재가공기술을 결합해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소재 시장을 선점하고, 남북 간 긴장완화와 경제적 부가까지 창출에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 오 책임연구

원의 주장이다.

이를 위해 과거 개성공단 경험사례를 반추하면서, 추진 방식과 돌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개성공단 조성 시 LH공사와 현대아산(주) 합작으로 공업단지를 조성한 사례에 준해 북한 측 마그네사이트 광산 인근에 기초 가공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은 국비 혹은 LH공사에서, 남의 마그네슘 고차가공을 위한 산업시설과 항만시설 등은 참여기업에서 부담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오 책임연구원은 “경량소재산업이야말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필요한 후방산업으로서 향후 성장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경제협력사업으로 마그네슘산업을 육성하는 것이야말로 통일비용 저감, 남북간 경제적 격차 완화, 4차 산업혁명 대비 등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토론토서 차량돌진 사고...한국인 2명 사망

지난 23일(현지시간) 캐나다 토론토에서 발생한 차량돌진 사건으로 한국인 2명이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발생 직후 긴급 구조대가 사건 현장 주변 도로를 봉쇄하고 있다. 외신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30분께 흰색 밴 차량(승합차)이 토론토 북부의 핀치 대로에서 인도도를 향해 돌진, 보행자 최소 10명이 숨지고 15명이 다쳤다. 운전자는 현장에서 체포됐으며, 수사당국은 테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농성지하차도 경사 완화 공사... 5월부터 일부 폐쇄

급경사로 인해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집중호우 시 침수가 발생했던 농성지하차도의 경사 완화를 위한 공사가 본격 추진되면서 오는 5월 1일부터 지하차도 일부가 폐쇄된다.

광주시 종합건설본부는 24일 “지난 1월 시작된 경사완화공사는 기존 총길이 215m의 도로를 각각 50여 m 늘려 320m까지 확장하는 내용으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또 현재 8% 수준인 종단면 기울기를 2~3% 낮추는 구조개선사업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오는 5월 1일부터 상록회관에서 화정역 방향 지하차도를 폐쇄한다. 화정역~상록회관 방향 지하차도는 정상 운영한다. 또 농성교차로의 상록회관~화정역 양방향 좌회전과 화정역~백운광장 방향 우회전이 각각 금지된다. 교통량 분산을 위해 광주새우리병원 인

근에 임시교차로를 설치해 광천사거리 또는 대남대로로 진행하는 차량을 우회하도록 하고, 임시교차로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우회도로인 군분로의 주차단속을 강화한다. 상공회의소 앞에서 정차하던 지연 56번 시내버스 정류장을 서서고 입구로 옮겨 운영한다.

시는 지난 23일부터 상무대로 일대에 공사 기간 변경되는 내용을 담은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홍보활동을 나섰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6·13 선거 현장

광주시장 후보

이용섭, DJ·노 전 대통령 묘소 참배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후보로 확정된 이용섭 예비후보가 24일 고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소를 참배하고 “광주를 대한민국 중심으로 우뚝 세우려 역사에 남는 시장이 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국립 서울 현충원 김대중 대통령 묘소와 경남 김해시에 있는 봉하마을의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소를 차례로 참배하고 “저는 그동안 김대중·노무현·문재인 대통령의 부름을 받고 중요한 국가적 과제들을 완수했다”며 “이제는 광주시민의 부름을 받아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광주시장 후보 나경채 전 대표 확정



정의당 광주시당은 24일 광주시장 후보로 나경채 전 정의당 공동대표를 확정했다.

나 전 공동대표는 “저는 쌓아올리지 않는 시장이 되겠다. 저는 부수지 않는 시장이 되겠다. 저는 뭘 유지하는 대신 시민의 협동으로 창조하는 시장이 되겠다”고 밝혔다.

또 “민주당 이용섭 후보의 핵심 공약인 경제자유구역에 대해 철저하게 해부하고 비판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 경선과정을 지켜보면서 실망한 시민들과 민주당 일당독점에 우려하는 시민들을 광주 정치의 다양성을 실현할 주인공으로 모시겠다”며 “반드시 승리하여 광주정신의 진정한 계승자가 되겠다”고 덧붙였다.

전남도교육감 후보

고석규 “전남형 교육모델 개발”



고석규(61·전 목포대총장) 전남교육감 예비후보는 24일 “전남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전남형 교육 모델을 개발해 어느 지역도 소외되지 않는 교육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고 예비후보는 “전남은 도시·농어촌·도시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됐다. 지역별 학교분포는 시지역이 23.9%, 읍지역 20.2%, 면지역 39.8%, 도서지역 12.1%, 벽지 3.9%로 나뉜다”며 “지방분권시대를 맞아 전남형 교육모델을 개발해 아이들의 행복을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고 예비후보는 “지역단위 교원임용제를 확대해 교원들이 기피하는 농어촌과 도서지역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장석용 “도민참여예산제 도입 투명성 확보”



장석용(63·전 전교조 위원장) 전남교육감 예비후보는 24일 “도교육청 예산 운용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장 예비후보는 “‘도민참여예산제’는 기존의 도교육청 행정이 주도해 왔던 예산 편성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예산 편성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장 예비후보는 “지방분권시대에 맞는 교육자치 실현을 위해서 교육부의 권한이 교육청으로, 교육청의 권한이 학교로 옮겨지고, 학교를 구성하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민에게 권리가 배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광록·김형호기자 khk@kwangju.co.kr

윤장현 시장 “시정 공백 없이 민선 6기 잘 마무리를”

확대간부회의서 당부

윤장현 광주시장이 24일 6·13 지방선거 출마를 마친 후 확대간부회의를 갖고 시정 공백 없는 민선 6기의 마무리를 시공직사회에 당부했다.

윤 시장은 회의에서 “주요 현안사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해 주시고, 아울러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업무는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살펴 주시기 바란다”며 “출자·출연기관들은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긴장된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면

한다”고 강조했다. 또 27일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광주가 남북평화의 물줄기에 힘을 보탬 수 있도록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북한 선수단 참가 등 문화·스포츠·민간 차원의 광주형 남북 교류협력에 정성을 다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회의에서 그는 ▲최근 유네스코로부터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정받은 무등산권 지질공원의 세계화 ▲제38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행사 준비 ▲2019년 국비 및 청년일자리 예산 확보 총력 등도 언급했다.

윤 시장은 “광주가 유네스코 5·18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 미디어 아트 창의 도시 지정에 이어 3번째로 역사, 문화, 자연분야에서 세계적인 도시임을 인증받게 됐다”며 “무등산 지오파크의 체계적인 보존과 더불어 무등산 남도피아, 풍류남도 나들이, 지오투레일 등 관련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사업 간 연계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역사와 경관, 남도풍류가 어우러진 ‘관광테마’를 마련해 홍보마케팅에 전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佛 가스 제조기업 에어리퀴드 여수산단에 1570억 추가 투자

전남도는 글로벌 산업용가스 제조기업인 에어리퀴드가 여수 국가산업단지에서 1570억을 추가로 투자해 공장을 증설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전남도 투자유치단은 최근 프랑스 파리에 있는 에어리퀴드 본사를 방문해 투자 의향을 확인했다.

에어리퀴드 관계자는 “전남도와 여수시에서 검토 단계부터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 추진 등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며

“여수산단 고객사에 안정적으로 원료를 공급해 지역 경제 발전을 돕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전남도와 여수시는 에어리퀴드 측의 투자 검토 소식을 듣고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를 방문해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등 인센티브에 대한 내부 조율을 거치는 등 활발한 유치 활동을 벌였다. 또한, 타당성조사용역을 자문하는 등 에어리

퀴드 본사와 한국 법인을 대상으로 일제적 투자유치 활동을 펼쳤다.

에어리퀴드는 세계 80여 개국에 진출한 산업용 가스 제조기업으로 1999년 여수산단에 수소·일산화탄소 생산시설을 가동했다.

김기홍 전남도 투자유치담당관은 “MDI와 TDI는 건설자재, 의류, 페인트, 자동차 시트 등 제조에 쓰이는 폴리우레탄의 원료”라며 “여수산단 생산량의 80%가 중국 등 해외에 수요가 있는 만큼 수출 증대, 향만 물류 창출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2018 최우수축제

제40회 진도 신비의바닷길축제

만남이 있는 신비의 바다로!!

2018. 5. 16.수-5. 19.토 / 4일간

전남 진도군 고군면 회동리 일원

주최 Jindo 진도군

주관 (사)진도군관광진흥협의회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전라남도 한국관광공사

제7회 진도개의 날 기념

2018 대한민국

진도개 페스티벌

5.5.(토)~5.6.(일)

진도개테마파크 일원

주관 Jindo 진도군

후원 진도개명견화사업단

또 하나의 가족, 진도개는 내친구!